

## 남아공 월드컵 D-8



## 내일 스페인과 최종 리허설

# 베스트 가동... 아르헨티나 해법찾기

4-4-2전략 '박주영·염기훈' 투톱 테스트  
 강민수 합류한 수비 조직력 집중 점검도

“아르헨티나를 가상한 세계 최강 스페인과 맞대결에서 많은 걸 배우겠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2일(한국시각) 스페인과 친선경기(4일 새벽 1시·인스브루크 티볼리노이 스타디움)를 이틀 앞두고 ‘무적함대’ 스페인과 경기에서 한 수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겸손한 출사표를 던졌다. 오는 5일 결전의 판인 남아공 입성 하루 전에 치르는 스페인과 평가전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남아공 월드컵 개막을 1주일 앞둔 한국 대표팀의 마지막 모의고사이자 최종 엔트리(23명)를 확정하고 나서

치르는 첫 A매치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팀으로서 스페인과 경기 월드컵 베스트 11를 가늠해볼 수 있는 최종 시험무대다.

지난달 30일 벨라루스와 평가전에서 0-1 패배를 당한 한국은 주전 수비수였던 곽태휘(교토)가 무릎을 다치면서 끝내 대표팀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 했다.

허정무 감독은 곽태휘 교체 선수로 강민수(수원)를 불러들이는 한편 공격수 이근호(이와타)와 미드필더 신형민(포항)·구자철(제주) 등 세 명을 탈락시킨 최종 엔트리 23명을 확정했다. 고심을 거듭해왔던 ‘육성 가

리’를 모두 마쳐 이제는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 목표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을 준비를 끝낸 것이다. 아르헨티나를 가상한 스페인은 스파인 상대치고는 강적 중의 강적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인 스페인은 2008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08)를 평정하며 이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우승을 노리고 있다.

비센테 델 보스케 감독이 지휘하는 스페인은 지난달 29일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에서 3-2 진압승을 거뒀지만 짧고 정교한 패스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볼 점유율과 스피드 넘치는 공격 전개는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한국으로선 승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실점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와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2차전을 겨냥해 화끈한 효과를 낼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다.

허정무 감독은 스페인에 맞서 해외파를 주축으로 하는 최정에 전력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남아공 월드컵



때 주전으로 벨 베스트 멤버로 총출동하는 것이다. 허 감독은 종전처럼 4-4-2 포메이션을 구사할 예정인 가운데 간판 골키퍼 박주영(AS모나코)의 파트너로 ‘인발 달인’ 염기훈(수원)을 낙점했다.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이영표(알 힐랄)-조용형(제주)-이정수(가시마)-차두리(프라이부르크)가 늘어서 골키퍼 장갑은 베테랑 이운재(수원)가 낀 예정이다. 한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승부차기 대결 끝에 스페인을 제물 삼아 4강 신화를 창조했던 좋은 기억이 남아 있다. 그러나 당시 경기는 무승부로 기록됐기 때문에 한국은 스페인과 역대 상대전적에서 2무1패로 뒤져 있다. /연합뉴스

# 통증 호소 박지성 스페인전 불투명

이틀째 재활 치중

“출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무리시키지 않겠다.”

축구대표팀의 ‘캡틴’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인 스페인과의 평가전 출장이 불투명해졌다.

박지성은 2일(한국시각) 전지훈련지인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 캄플구장에서 진행된 훈련에 불참했다.

전날 스페인과 평가전 장소인 티볼리노이 스타디움 훈련 때도 오른쪽 안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훈련을 함께하지 않았던 박지성은 이틀째 재활에 집중했다.

박지성은 이날 훈련장에 아예 나오지 않은 채 대표팀 숙소인 야르트호프호텔에서

최주영 재활 트레이너 팀장과 간단한 재활 훈련을 했다.

박지성은 지난달 30일 벨라루스와 경기 때도 선발 출격해 전반을 뛰고 나서 후반에는 염기훈(수원)으로 교체됐다.

박지성은 뻣뻣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대표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 큰 부상은 아니지만 장기 시즌 등 일정 강행에 따른 피로 누적에 원인이 된 셈이다.

스페인과 경기에 교체 출장할 수 있지만 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표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박지성이 스페인과의 경기에 필자는 장담할 수 없다. 출장할 수는 있지만 무리시키지 않는다는 게 코칭 스태프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일(한국시각)오전 스페인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티볼리노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서 선수들이 16강 진출을 위해 값진 땀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허벅지 부상 이동국 그리스전 맞춰 훈련

“그리스와 1차전을 염두에 두고 훈련하고 있다. 최종 엔트리에선 탈락한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내겠다. 한국이 16강에 오를 수 있도록 찬스를 살리겠다.”

허벅지 부상 여파에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 엔트리(23명)에 포함된 공격수 이동국(31·전북)이 2일(한국시각) 합격에 따른 월드컵 출전권에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의 월드컵 첫 원정 16강 진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동국은 이날 전지훈련지인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 캄플구장에서 진행된 훈련에 앞서 인터뷰에 응했다. 최종 엔트리 발탁과 탈락의 경계선에 있었던 이동국은 지난 16일 예과 드와 평가전 때 허벅지를 다쳐 지루한 재활을 해왔고 남아공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2·3차전인 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 경기에 뛸 수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기사화됐다.

그는 19세의 나이로 출전했던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출전 꿈

을 이뤘다. 이동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당시 대표팀 사령탑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의 낙점을 받지 못했고 2006년 독일 월드컵 직전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바람에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봤다.

그는 12년 만의 월드컵 출전 꿈을 이룬 것에 대해 “몇 년을 기다렸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아 잘 준비하고 있다”면서 “(최종 명단 발표 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다. 1차전 출전을 염두에 두고 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3명에서 탈락한 공격수 경쟁자 이근호(이와타)에 대해선 “누구보다 월드컵을 향한 열정이 컸던 선수였기에 아쉽게 생각한다. 이번 시련을 극복해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탈락한 동료가 먼저 들어가는 걸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안했다. 그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태극전사들 “2승 1무로 16강 간다”

대표선수 대상 설문조사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에 도전하는 축구대표선수들이 반드시 조별리그를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 취재진이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 현지에서 축구대표선수들을 대상으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추진했던 설문조사를 2일(한국시각) 집계한 결과

응답자 23명 전원이 B조(한국·그리스·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나란히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설문 조사는 예비 엔트리 26명 중 부상으로 낙마한 곽태휘(교토)를 뺀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한국의 조별리그 예상 성적에 대해선 7명이 ‘2승1무’라고 예상해 가장 많았고 2승1패와 1승1무1패는 각각 5명이었다. 또 1승2무

도 4명이 선택했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 우승 후보로는 가장 많은 14명이 ‘무적함대’ 스페인을 꼽았고 브라질(7명)·아르헨티나(3명)·독일(1명) 순이었다.

첫 골 주인공 후보로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박주영(AS모나코)이 각각 8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청용과 기성용, 염기훈, 이정수, 오범석, 차두리 등도 1표씩을 넣었다. /연합뉴스

## 南北, 이탈리아전 승리 월드컵 이번 톱10

한국과 북한이 월드컵에서 영원한 우승 후보 이탈리아를 각각 꺾은 것이 미국의 스포츠 전문채널 폭스스포츠가 꼽은 ‘월드컵 이번(Greatest upsets in World Cup history)’ 톱10에 나란히 올랐다.

한국이 2002년 한일월드컵 16강에서 강호 이탈리아를 골든골로 이긴 것은 9위에 올랐다.

폭스스포츠는 한국이 월드컵 공동 주축국 이긴 하지만 세계 축구 최강국인 이탈리아를 아시아 국가가 이긴 것은 이번이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안정환은 연장전에서 극적인 헤딩 골든골로 한국의 8강 진출을 이끌었다. 폭스스포츠는 안정환이 이탈리아 경기에 골을 넣고 나서 손을 들고 기뻐하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이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를 꺾은 것은 5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이탈리아에 전력상 절대 열세라는 평가를 뒤엎고 전반 42분 박두익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하는 대회 최대 이변을 일으켰다. 북한은 이 승리로 아시아 국가로는 역대 처음으로 8강에 올랐다.

월드컵 이번 1위에는 1950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루과이가 브라질에 2-1 역전승을 거둔 것이 뽑혔다. /연합뉴스